

근대 이후 한국과 중국의 문화접변에 따른 전통복식 변화에 관한 연구

성희진* · 유송옥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근대기 전통복식의 변화 이면에는 문화 충격과 긴장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시기 중요한 문화접촉과 변동이 민족, 국민문화의 경계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문화접변의 과정을 부분적 해체, 외래문화요소의 유입, 저항, 부분적 해체의 계속, 문화요소의 재해석, 재구성으로 나눈 히라노 켄이치로의 모형을 가지고 근대이후 한국과 중국의 문화접변과정과 그에 따른 전통복식 변화를 분석하여 근대이후 오늘날까지 양국의 전통복식의 변화에 끼친 서구복식문화의 영향과 전통복식이 가지는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 모두 외세에 의한 적대적 문화접변을 시작하였고 여성에게는 전통적 여성상을 고수하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에서 여성은 남성과 달리 서구복식의 직접 도입보다는 그 특성을 전통복식에 가미하여 개량하는 단계를 밟는 데에는 공통적인 특징을 띤다. 그렇지만 저항, 재해석의 단계에서는 시장의 성장과 정부의 지원으로 순조롭게 이행하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전통문화의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접변 과정에서 심리적 작용을 보면 양국 모두 새로운 교육을 받은 여학생 신여성들이 전통복식의 개량 및 양장의 도입을 주도하였다. 그렇지만 전통복식의 지속적 작용을 주도한 저항계층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단일민족국가인 한국에서는 문화접변 전후인 구한말의 주요품목인 치마, 저고리, 배자, 두루마기 등의 품목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승되었고 궁중 및 상류층의 녹원삼, 당의 등이 예복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그 외 실루엣, 재질, 색상은 서구의 복식문화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아가며 변화·발전시켜왔다. 그렇지만 다민족국가인 중국은 서구문

화와 접촉할 당시 소수민족인 만주족이 통치하던 청왕조로 이로인해 한족의 전통복식이 상당부분 변모되어 있었다. 서구문화의 접변으로 인해 한족과 만주족, 서구복식의 특성이 혼합된 치파오라는 새로운 품목을 만들어내었고 이것은 중국의 새로운 국가복식이 되었다. 치파오의 실루엣, 재질, 색상은 서구복식의 영향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에서 전통복식은 세계화시대 다른 국가와 자국을 구분하고 국민을 단합시키는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전통복식은 반외세, 민족주의의 상징과 상류층의 고급문화, 특별한 날의 예복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식민지 경험이 없고 청말에 이미 한족의 전통은 상당부분 상실된 상태에서 유교적 전통의 거부, 남녀평등의 의미를 담고 치파오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치파오는 민족주의의 상징이 되기보다는 국내의 정치적 격변에 따라 존재의 위협을 받았고 국가복식으로서 그 지위는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미약하다. 그렇지만 화교권, 영화, 현대패션등의 요인으로 대외적인 인지도에서는 상당히 높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서구문화 유입이후 한중 양국의 전통복식변화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최근의 교통·통신의 발달로 문화접변의 여건은 19-20세기와는 매우 다르다. 유입과 동시에 수용되기가 예사라 21세기 문화변동에 본 연구의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21세기의 급변하는 문화여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전통복식의 역할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들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